내가 직접 쓰고 그려보는 어린이날 선언문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캠페인은?

2022년 어린이날 선언문은 곧 오늘날을 사는 어린이가 어른에게 하고 싶은 말 모음입니다.



어린이로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보육원의 어린이 401명이 참여하여 30개의 선언문을 선정하고, 어른인 30명의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으로 화답한 캠페인입니다.



어른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글. 나재영 어린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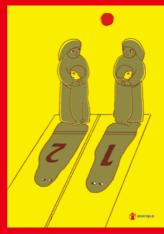


그림. 아티스트 프루프

어린이가 직접 쓴 선언문에

어린이날 100주년 캠페인

30인의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으로 화답합니다









어린이날이란?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어린이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서양의 어린이들과 일<mark>제강점기,</mark> 조선의 어린이들은 모두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등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를 인격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1922년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권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적국의 어린이를 도운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운동가이자, 1922년 어린이날의 기초를 만든 소파 방정환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아동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인류 최초로 아동 권리를 주창한 사회개혁가

- 1차 세계대전 직후, 적국의 굶주린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설립(1919년)
-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 선언문을 작성함(1923년)



"우리에겐 오직 하나의 원칙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나라 아이건 어떤 종교를 가졌건 상관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권리선언문(1923년)

- 1.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도덕적,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2.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며, 발달이 뒤처진 아동은 도와야 하고, 엇나간 아동은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에게는 주거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 3. 재난이 닥칠 경우 아동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 4. 아동은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5. 아동은 자신의 재능이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양육돼야 한다.

민족운동가이자 아동문학 작가,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운동가. 일제의 탄압에 맞서 어린이 인권 향상에 앞장섰으며, 동료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만듦(1922년)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여 '어린이' 단어를 대중화시킴(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1923년)

-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 1.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1.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주시오.
-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